

# 연합예배 및 찬양제

2017년 10월 29일(주일), 오전 11시~오후 15시, 서울신대 성봉기념관  
 너머서, 더작은, 더함공동체, 새맘, 새술, 아름다운양지, 언덕, 예인, 장검다리교회, 교회개혁실천연대



사진제공 · 박희주

연대

기관

건강한작은교회연합

## 작지만 건강한 교회들의 플랫폼

오늘날 이 땅에는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식으로 개혁을 시도한 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건강한작은교회연합은 개혁을 꿈꾸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참고 사례로 읽히기를 바란다. 이에 형식적인 소개보다 그동안 겪었던 시행착오와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하는 건강한작은교회연합에 대해 소개해 본다.



박희주 집사

건강한작은교회연합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다.  
[건강한작은교회연합.net](http://건강한작은교회연합.net)  
[parkhj@mju.ac.kr](mailto:parkhj@mju.ac.kr)

너머서교회 집사이며, 건강한작은교회연합 운영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다.

## 건강한작은교회연합의 시작

‘건강한작은교회연합’(이하 ‘건작연’)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 간 연합기구로서 혼자서는 외롭고 어려운 개혁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 결성되었다. 건작연은 2005년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산파 역할을 맡아 탄생했다. 그해 여름 개혁연대의 주선으로 10여 개의 교회대표가 모였고 10월 종교개혁기념주간에 결성제안문을 채택해 ‘개혁교회 네트워크’란 이름으로 출범했다.

결성제안문에 나타난 네트워크의 성격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협력을 통한 개혁이다. 개혁을 염원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영세하며 따라서 단독으로 개교회의 경계를 넘는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연합을 통해 한국교회의 건강회복을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둘째는 이 일을 함에 있어 평신도의 주체적 역할이다. 준비모임 참석자들은 ‘평신도가 앞장서고 목회자가 지원하는’ 형태의 협력체에 대해 한마음으로 합의했다. 목회자가 이끌고 평신도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전통적인 교회 조직과는 반대의 형태였다.

전통적 구조 속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온 한국교회의 평신도에게 목회자 의존적 성향은 신앙 DNA에 고착되어왔다. 이러한 성향을 교정해 평신도의 자율적인 동역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했고 그래서 평신도가 이끄는 협력체를 도출했던 것이다. 이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 중 하나로 지목되는 목회자 중심적인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개혁의 한 실천이기도 했다. 그런데 목회자에 기울어진 무게추를 교정하기 위해 평신도에 더 무거운 추를 더한 결과는 또 다른 불균형이었다. 자발적인 소수의 평신도에게 집중된 운영구조는 피로감을 유발했고 급기야 목회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운영진은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2013년 ‘개혁교회네트워크’라는 모호한 이름을 버리고 보다 정체성이 뚜렷한 ‘건강한작은교회연합’으로 개칭했다. 그리고 평신도 중심의 운영방침에도 변화를 주어 목회자에게도 운영위원장직을 개방했다.

##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

2005년 시작한 건작연 사역의 중심에는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이하 ‘이교다세미나’)가 있다. 지금까지 총 11회 개최된 이교다세미나가 다룬 주제들에는 건작연의 관심과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든다.

2회 세미나에서는 ‘왜 교회개혁이 필요한가?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일반론적 접근을 했다. 이를 기반으로 4회 세미나에서는 ‘교회,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라는 주제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예컨대 ‘건물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위한 첫 단추이다’라는 발제에서는 당시 이를 실천하던 회원 교회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한 교회규약과 정관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에서는 정관 갖기 운동을 실천한 경험들을 나누었다. ‘교회다운 교회 함께 만들기’를 주제로 내건 5회 세미나에서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토론하며 ‘교회분립 시기와 방법은?’을 두고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목사의 권한 독점과 목사와 장로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종종 발생하는 ‘교회분쟁 해결방법은?’도 인상적인 발제였다. 2012년 개최한 7회 세미나는 ‘교회 민주화는 가능한가?’를 두고 토의했는데 교회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교회의 민주적 운영’은 ‘투명한 재정’과 함께 건작연이 시작부터 추구해온 두 핵심가치 중 하나였다. 재정의 투명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겠으나 민주적 운영과 관련해서는 건작연 소속 교회들이 갈등을 겪기도 했다. 예컨대 건작연 교회들은 모두 목회자의 임기제를 도입했는데 재신임을 묻는 과정에서 목회자와 운영위원회 간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각 교회는 민주적 운영의 핵심 장치로 평신도가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사역을 목회와 운영으로 이원화했다. 그런데 이 둘은 갈로 자르듯 명확히 구분되기는 어려웠으며 운영위의 결정으로 목회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원화로 인해 권한은 줄었는데 이에 더해 운영위의 영향도 받게 되니 목회자로서는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졌다고 느낄 수도 있었다. 한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재신임 과정에서 실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소신껏 목회하기 힘든 구조



사진제공: 박희주

속에서 사역에 대한 책임은 모두 지고 재신임 평가를 받는다고 느낀 것이다. 목회자는 급기야 재신임 과정을 거부하며 떠나고 신도들은 이탈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맞기도 했다. '소신껏' 목회하기를 원하는 목회자와 민주적 운영은 조화되기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민주적 교회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11회 이교다세미나 '민주적인 교회, '벽' 앞에 서다'의 주제였다. 방인성 목사는 '민주적 운영의 허와 실'에서 그동안 건작연에서 민주적 운영이란 가치가 "때로는 성서의 권위만큼 높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논쟁과 비판만 무성한" 미숙함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민주적 운영의 정관을 갖는 것과 실제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에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성숙한 민주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방 목사가 내부자의 관점에서 민주적 운영을 바라보았다면 황영익 목사는 외부자의 시각을 소개했다.

'민주적 교회를 보는 다른 이의 시선'이란 발제에서 황 목사는 다음과 같은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다. "왜 목회자들은 민주적 교회를 불편해하는가? 왜 한국교회에서 이 운동이 대중화되지 못하는가? 민주적 교회 운동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외부에서 볼 때 민주적 교회는 "그리 아름다운 풍경이나 양상이 아니"며 지금까지 건작연의 걸음걸이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해가며 성숙해가고 있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황 목사는 자칫 날카로울 수 있는 민주적 교회를 보다 따스하고 감싸안는 성경적 원리인 공동체 개념에 답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보기를 제언했다.

## 건강한작은교회연합의 10년에 대한 평가

2016년 이교다세미나는 지나온 10년을 결산하며 되돌아보는 심포지엄으로 대체되었는데 이 글을 준비하며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건작연





사진제공 · 박희주

10년, 정리와 반성 그리고 남은 과제'에서 최우돈 장로는 그동안의 건작연 사역에서 가장 아쉽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으로 평신도의 성숙을 꼽았다. 목회자 1인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목회자 권위주의를 시정하기 위해 건작연 교회에서 목회자는 권위를 내려놓았으나 평신도는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권위로 대체”하지 못하고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미숙함을 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장로는 건작연의 10년이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건작연은 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 지표-재정의 투명성, 교회운영의 민주화, 작은교회-를 정한 후, 이를 각종 제도를 통해 “목회현장에서 실행”에 옮겼으며, 그 유효성을 “임상적으로 점검”한 결과 “대단히 유용한 방안임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건작연이 처음 결성되었을 때는 존재감이 참으로 미미했고 기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최소한 그 메시지만큼은 개혁을 지향하는 많은 교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앞서 최 장로가 평신도의 미성숙을 지적했다면 두 번째 발제 ‘건작연 가치의 한계성 및 유효성’에서 정성

규 목사는 제도적 미성숙을 지목했다. 민주적 운영 방식으로 도입한 집단토론의 경우 “발언을 통한 의견 수렴방식”이 일견 민주적인 듯 보이나 실상은 “발언강자에게만 유리한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발언 약자들이 아주 편하게 자기 의견과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만 “99%의 발언 약자들이 교회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주적 운영은 “제도나 회의에서만”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일 특히 성경을 공동체가 함께 보고 해석하는 공동체 해석, 기도하는 일, 나눔하는 일 등 모두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를 위해 일반 성도는 물론이고 “목사와 장로도 성도 중 한 명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 나아갈 길

지금까지 걸어온 광야길을 돌아보며 건작연은 새로운 앞길을 고민하고 있다. 건작연의 핵심 가치 중 하나였던 민주적 운영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적어도

현재 남아 있는 건작연 소속 교회에서는 일정 수준 정착되었다고 자평한다. 긴 호흡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이 가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지 충분조건은 결코 아니란 사실을 구성원들은 자각하게 되었다. 이제 건작연은 민주적 운영에서 출발해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려 한다. 이를 위해 목회자와 평신도는 서로가 직능이 다를 뿐 가치는 동등한 존재이며 모두가 성도의 일원일 뿐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모두가 주안에서 하나의 성도로 묶이는 공동체, 정의로운 기초 위에 사랑으로 감싸 안는 공동체가 우리가 꿈꾸는 지향점이 아닐까 그려 본다.

건작연은 2기 사역을 준비 중이다. 건작연의 출발점이었던 '협력을 통한 개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좁은 길을 가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떨치기 위해, 좌충우돌의 경험을 서로 나누어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그리고 고질적이고 이기적인 개교회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연합은 여전히 필요하다. 건작연은 개혁을 향한 개교회의 다양한 고민을 서로 나누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

건작연이 꿈꾸는 정의와 사랑이 조화되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평신도의 성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건작연 아카데미'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여덟 쪽지로 구성된 강의는 줌으로 진행되며 목회자 4인, 평신도 4인이 강사로 나선다. 강의는 건작연 소속 교회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외부인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건작연은 연합예배, 온라인 포럼, 설교자를 교류하는 강단교류 등을 시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다.

끝으로 건작연이 지향하는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최근 회원 규정을 바꾸었다. 그동안 회원자격은 교회와 단체에 국한되었으나 이제는 개인회원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이 승인된 회원은 의결권은 없지만 줌으로 진행되는 건작연 운영위 회의에 참석해 직접적인 교류가 가능하다. 건작연 홈페이지([www.건작연.net](http://www.건작연.net))에 가입 안내가 있으며 회원교회들과 건작연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도 열람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이들이 와서 함께 고민하고 동역하면 좋겠다. 🍷

## 이제 건강한작은교회연합은 민주적 운영에서 출발해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려 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서로가 직능이 다를 뿐 가치는 동등한 존재이며 모두가 성도의 일원일 뿐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모두가 주안에서 하나의 성도로 묶이는 공동체, 정의로운 기초 위에 사랑으로 감싸 안는 공동체가 우리가 꿈꾸는 지향점이 아닐까 그려 본다.